

광주·전남 '물폭탄' 대비 '물그릇' 만든다

올 여름 강수량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 40% 동북댐 등 가뭄 수준으로 방류...수원지도 저수율 낮춰

6일 무등산자락에 자리잡은 광주시 북구 청풍동 제4수원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4수원지는 190만t의 물이 차 있어야 하지만, 지난 4월부터 광주전으로 물을 쏟아내고 있다.

올여름 집중호우가 예상돼 폭우시 빗물을 담은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물을 빼 놓는 작업이다. 광주·전남의 지자체 등이 '물그릇 만들기 대작전'을 진행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영산강·섬진강유역본부(영·섬본부)는 동북댐(화순)과 주암댐(순천), 장흥댐(장흥)에서 물을 빼내고 있다. 이 댐들은 광주·전남 지역의 상수원이다.

광주·전남 관계기관이 참여해 '댐·보 등의 연계 운영협의회'에 수위조절 계획을 제출하고 주암댐과 장흥댐의 방류량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동북댐의 현재 수위는 165m로 지난해 6월 가뭄 위기 상황 때 기록했던 156m와 불과 9m차이다. 물그릇을 만들기 위해 거의 가뭄수준으로 물을 빼고 있는 것이다.

20만t씩 주암댐으로 방류를 계속 해오다 현재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10일 전부터 10만t으로 줄여 방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북댐의 물을 받고 있는 주암댐은 지난 4월 1일부터 댐 하류인 보성강으로 흘려보내는 물의 양을 증가시키고 있다. 3월 말 105.6m였던 수위는 6월 현재 100.9m까지 내려갔다.

장흥댐 역시 두달간 물을 쏟아내 75.8m에서 현재 70.4m로 수위가 떨어졌다. 영·섬본부는 다만 용수댐(평림·수어댐)은 방류량을 늘리지 않고 있다.

영·섬본부는 홍수가 시작되는 이달 20일 전까지 수위 조절을 통해 설계 홍수조절용량인 1.2억

의 약 3.8배에 달하는 4.5억t의 용량의 '물그릇'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상 이변 등으로 시간당 30mm 이상 물폭탄이 쏟아지면 당장 쓸 물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6-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다.

7월은 저기압 영향으로 비 오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월 역시 발달한 저기압과 불안정한 대기로 인해 많은 비가 예상된다.

댐 뿐만 아니라 저수지도 수위조절에 들어갔다. 광주·전남지역 저수지와 호수, 연못 등은 방류하고 있지는 않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위기 대비 저수율 80%로 낮추라는 지시에 따라 저수율 70~80%를 유지하고 있다. 또 저수지의 경우 일주일 전 기상청의 예보를 받고 수일 전 미리 증가방류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대비하고 있다.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제2수원지와 제4수원지도 영산강홍수통제소 매뉴얼에 따라 지난 4월 중순부터 저수율을 낮추고 있다.

용연정수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2수원지의 경우 6일 기준 저수율 36%를 유지하고 있다. 수문이 별도로 없어 600mm 농업용수배관을 이용해 하루 5000t씩 물을 빼내고 있다. 현재 수위가 현저히 낮아져 1000t 이하로 방류하고 있다.

제4수원지 역시 지난 4월 16일을 기점으로 하루 2만 4000t씩 방류해 왔으며 현재는 저수율 47%를 기록해 1000t 이하로 조정 단계다.

용연정수장 관계자는 "농번기 농사에 지장이 없을만큼 물을 빼고 있어 농가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본격적인 우기가 되면 농업용수배관으로 방류할 수 있는 최고치로 하루 4만~5만t씩 방류해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방류작업을 진행해 온 광주시 북구 청풍동 제4수원지의 바닥이 드러나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고3 84%·N수생 61% "6월 모평 어려웠다"

"영어 가장 까다로워"

고3 수험생과 N수생 46.4%가 지난 4일 치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영어 영역이 가장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도 문장 의미 추론, 글의 제목, 글의 요지를 파악하는 문항에서 매력적인 오답이 많아 수험생이 고전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으로 고3 1372명, N수생 972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74.2%는 이번 6월 모의평가에 대해 어렵다고 답했다. 그 중 '매우 어렵다'가 15.7%, '어렵다'가 58.5%였다.

고3은 83.7%가 이번 모의평가를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매우 어렵다'는 21.6%, '어렵다'는 62.1%였다.

N수생 중에선 60.9%가 6월 모의평가가 어려웠다고 답했다. 어렵다는 답변 비중이 작지 않았지만, 고3보다는 22.8%포인트 낮았다. '매우 어

렵다'는 7.4%, '어렵다'는 53.5%였다.

가장 어렵게 출제된 영역에 대해 수험생의 가장 많은 46.4%는 '영어'를 꼽았다.

고3의 경우 영어(49.9%), 국어(29.4%), 수학(20.7%) 순으로 어려웠다고 답했다.

N수생도 영어(41.6%)를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선택했다. 그다음은 수학(33.3%), 국어(25.1%) 순이었다.

영어는 지난해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한 2018학년도 이래 가장 어렵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광주진학부장 협의회는 "영어의 경우 EBS 간접연계 출제가 경향이 두드러지고 문제풀이 기술보다 문장 분석 능력과 어휘력을 바탕으로 정확한 독해를 요구하는 문항이 늘어 채점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학도 기존에 출제됐던 유형과 상이하게 출제돼 적지 않은 학생이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진단됐다.

이번 모의평가에서 채점 난도가 높았기 때문에 수험생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모의평가 이후 학습 난도를 높일 계획이 있는지는 물음에는 89.6%가 '그렇다'고 답했다. 고3에게선 이 응답 비율이 90.1%, N수생에게선 88.9%로 조사됐다.

종로학원은 "수험생들이 수능 난도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부담 정도는 고3 수험생이 N수생에 비해 높았다"고 분석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를 기준으로 6월 모의평가에서 졸업생 응시자가 소폭 감소했으나 의대 정원 증원 영향 등으로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은 졸업생 응시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고3 재학생은 수시 수능최저기준 충족 여부를 따지고 정시에서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등급 확보를 고려하는 등 대입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패턴을 유지하면서 수능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선택과목 변경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환경회의' 출범...현안 한목소리 낸다

정부의 환경정책에 한 목소리로 대응하기 위해 광주지역 환경단체가 '광주환경회의'를 출범했다.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광주지역 환경단체들이 모여 '광주환경회의' 출범 선언 및 환경의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광주환경회의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 불교환경연대,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이 함께한다.

단체들은 "윤 정부가 환경정책의 공든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정부가 기후위기에 대한 위협성을 강조하면서도 환경정책은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정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4대강 재장전화 폐기, 원자력발전소 수명연장, 그린벨트 해제, 국립공원 케이블카 및 산악 열차 설치, 신규 댐 건설

정책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지역 환경단체들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각 단체별로 현안에 대응하기 보다는 한 목소리로 내면서 힘을 응집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다.

단체들은 "지난해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취소되면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변경돼 금강 세종보의 수문을 닫으려 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금강이 훼손되고 생명이 살지 않는 강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영광 함빛1·2호기 수명연장 등 지역 현안이 포함된 원전 진흥정책에 대해서도 사고가 많은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 발표, 고준위원전폐기물 처리 방안이 없는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정책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환경적 재앙은 국민들이 모두 떠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북구 평두메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기념행사

8일 무등산 원효광장 일원

광주시 북구 화암동 '평두메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북구는 8일 무등산국립공원 원효광장(무등로 1522-1) 일원에서 '평두메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기념행사'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오전 10시 시작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평춘마을 주막밭(300인분)과 개구리 인형 키링(500개), 평두메습지 안내 책자 등을 받을 수 있다.

기념식 후에는 원효 광장부터 바람재까지 2.4km 구간을 등반하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토끼등과 장벌레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인증하면 경품도 받아볼 수 있다.

평두메습지 퀴즈를 풀거나 탄소중립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운영되며 평두메습지 경관 사진이 전시되는 숲속 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마련됐다.

한편 평두메습지는 광주도심 인근 내륙습지로 786종의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3일 람사르습지로 등재됐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값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